

민선 6기 대전광역시장 후보 재난 및 안전 공약 분석 보고서

1. 취지 및 개요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부터 최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참사 등 재난으로 인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정부의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2014 지방선거 대전유권자네트워크(이하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시장 후보들의 재난 및 안전공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이 되면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2. 분석의 틀

(1) 각 대전광역시장 후보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공약 전체 공개 요청

대전유권자네트워크는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후보가 준비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모든 후보들이 제출했다.

(2) 각 대전광역시장 후보의 재난 및 안전 공약 분석과 평가지표

대전유권자네트워크와 국가위기관리학회 김검훈 재난관리연구위원장이 함께 각 후보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활용한 것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진행한 매니페스토운동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 여부 평가를 위한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인 'SMART'와 'SELF2)'를 평가지표로 평가하였다.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인 SMART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표 1] 매니페스토 평가 채점표 : SMART와 같다.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인 SELF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표 2] 매니페스토 평가 채점표 : SELF와 같다.

아울러 매니페스토 평가 채점은 각 항목별로 5점(매우 그러함), 4점(약간 그러함), 3점(보통임), 2점(별로 그렇지 않음), 1점(전혀 그렇지 않음)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 점수로 산정하였다.

1) SMART란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chievable(달성가능성), Relevant(적실성), Timed(시간계획성)을 말함.

2) SELF란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mpowerment(자치역량강화), Locality(지역성), Following(이행평가)을 말하는데, Following(이행평가)은 공약실행 과정 또는 이후에 평가가 가능한 기준으로 이번 공약평가에서 제외하였음.

[표1] ■ 매니페스토 평가 채점표 : SMART

평가기준	내 용	평 가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Specific (구체성)	공약 달성을 위한 자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					
Measurable (측정가능성)	공약 목표의 달성여부가 구체적인 수치나 지표로 나타나 있다					
Achievable (달성가능성)	공약 실현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Relevant (적실성)	우리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안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공약이다					
Timed (시간계획성)	공약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간계획과 목표달성 기한이 잘 설명되어 있다					
총 계						

[표2] ■ 매니페스토 평가 채점표 : SELF

평가기준	내 용	평 가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공약의 목표가 우리지역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이 실현되면 대전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mpowerment (자치역량강화)	재난안전분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시민의 참여를 확대, 독려하는 공약이다					
	재난안전분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민 · 관 협력을 추구하는 공약이다					
Locality (지역성)	우리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이다					
	대전광역시 재난안전관리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총 계						

3. 대전시장 후보 별 재난 및 안전 관련 공약 평가

1)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성호 후보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와 민관합동 도시안전망 구축을 공약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별 안전관리, 예방안전 대책, One Network을 통한 즉시 대응체계 구축, 범죄 및 안전사고의 예방활동 강화를 주요 공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호 후보의 재난 및 안전공약에는 안전한 대전을 위한 비전이 없으며,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화재와 폭력, 범죄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대응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안전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아울러 재난 발생 후 초등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방법이 없어서 안전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이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재원을 분배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

어깨동무 프로젝트, 맞춤형 재난예방교육 실시, 재난위험지구 지도 제작, 시민생활안전지수 개발, 안전관리 부서 설치, 범죄폭력예방 3길 프로젝트,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 보호,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를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공약으로 하고 있다.

권선택 후보의 공약은 지역적 특성의 안전 수요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구상의 전문성이 낮아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재난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어떤 내용과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난위험지구 지도와 시민생활안전지수 개발은 내용에 큰 차이점이 없고, 무엇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은 재난 및 안전의 직접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렵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보다 방사능 노출의 경우에 시민 보호를 위해 대전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방사능 위험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 초등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나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내용의 국비와 시비의 조달 비율이 동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기호 3번,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

대덕특구 등 산업단지 안전 보장, 안전하고 체불 없는 건설현장, 시민안전체험관 설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

김창근 후보의 공약은 내용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법이 없고, 대전시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러 기관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공약임에도 어떠한 협조와 지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국세의 전환과 조례 제정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사업장과 지방의회의 협조 및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4) 기호 4번, 정의당 한창민 후보

방재안전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 원자력 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운용현황 시민들에게 실시간 통보 체계 구축,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으로 여성·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야간골목길 보행안전등 및 비상벨 설치로 안전한 밤길 만들기, 흙손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한창민 후보의 공약 중 방재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대전시장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대전지역의 재난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의 실현 계획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 원자력시설 및 기타 환경 관련 시설의 문제는 대전광역시장의 역할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원자력시설과 대전시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전광역시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시민과 주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흙손 지정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방의 회와의 협조 및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공약 실현을 위한 자원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 배분과 사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4. 총평

대전시장 후보 4명의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대전시장은 재난으로부터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장 후보들의 재난 및 안전공약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①충분히 준비한 공약이 아닌 세월호 참사 이후 급하게 만들어진 공약으로써의 한계, ②대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복합재난에 대한 고민이 아닌, 화재와 폭력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심의 정책으로써의 한계, ③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목표달성 기한의 부재 또는 모호, ④실질적인 자원 조달 방법의 미비, ⑤재난 초동대응에 대한 고민의 부족, ⑥기존 조직의 통합 또는 별도의 조직 구성 등이 드러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의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대전시장이 되더라도 재난 및 안전으로부터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선자의 공약이 갖는 부족한 부분은 다른 후보자의 좋은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대전을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공약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다음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재난 및 안전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원조달방법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공약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시장 후보들은 자신의 재난 및 안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또는 자원조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네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자원계획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비예산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부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급하게 마련한 공약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과 동시에 실천의 의

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들에게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원조달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발생가능한 재난의 초등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초등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지, 또 여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초등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대의 재난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재난의 경우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초등대응에 대한 각종 매뉴얼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공약 실현가능성과 목표달성 기한 설명이 필요하다.

공약은 실현 방법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의 각각의 공약은 단계별 시간계획과 달성 기한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약 실현 방법이 비현실적이고, 대전광역시 자체 실천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도 없다. 공약 실현가능성과 달성 기한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